

박이도 시의 기독교 세계관 연구

이수빈*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형이상학성의 실천 토대와 생명 지향
3. 신앙적 언어에 숨긴 불안과 구원의 갈망
 - 박이도와 릴케 시의 '고독'과 '존재'의 의미
4. 나가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박이도의 문학이 기독교 전파의 목적이 아닌, 삶의 원형을 탐구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보편적 통찰을 추구했다는 것을 밝힌다.

박이도의 시세계는 기독교적 사유를 근간으로 해석되면서 문학과 종교의 상호성을 확장해왔다. 자유, 사랑, 구원 등에 대한 갈망을 서정적 내러티브로 형상화하며 한국 종교시의 보편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차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문화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정신 안에서 지속적인 성찰과 고뇌를 수행해온 박이도의 시세계는 한국 기독교 문학의 성격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의 대의를 담고 있는 문학이면서도 기독교 신앙과 대면하는 정신을 발견하게 된다. 종교를 바탕으로 한 그의 정직한 내면의 투사는 구체적인 실존이 된다. 본고에서는 박이도의 시작품 전체가 기독교적 세계관과 정신에 직·간접적으로 접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신의 변화 과정이 종교적 사유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전개된 사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박이도의 시가 문학과 종교의 매개로 서 갖는 역할과 의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제어 : 박이도, 기독교, 생명, 순수, 구원, 형이상학, 기독교문학

1. 들어가는 말

박이도(1938-)는 1959년 『자유신문』과 196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며 65년간 꾸준히 시작 활동을 해오고 있다. 박이도 시에 대한 평가는 주로 문학의 종교성과 관련되어 논의 되어 왔다. 그의 시는 기독교적 사유를 근본으로 한 이상주의적 서사에 중점을 둔 시라고 할 수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과 함께 감사와 평화, 은총 등 밝은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다.¹⁾

박이도의 기독교 시에 대한 평가는 동시대적 관점에서 비관론에 기대지 않는 긍정적이고 원초적인 생명 의식에 중점을 둔 김현의 비평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된다.²⁾ 이후 김현의 비평과 맥을 같이 하지만 내면의식과 외부현실의 세계관 분리에 중점을 두고 해석한 김시태의 논의³⁾, 기쁨으로 우리나라의 신앙적 고백에 주목을 한 최동호의 논의⁴⁾, 생명에 대한 사랑과 고향에의 꿈으로 바라보는 김재홍⁵⁾의 논의 등이 있다. 상징의 원형으로서 시적 대상물을 바라보는 시인의 의식에 대한 논의 외에도 자연대상물을 대상으로 한 시어를 신앙의 대위 측면에서 모색하거나⁶⁾ 작품 텍스트와 이미지에 천착하여 해석하려는 시도⁷⁾가 많았다. 이 외에도 생애 인식의 절대적 순수의 공간을 ‘성채’라는 새롭게

-
- 1) 박이도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모태신앙에서 시작된 기독교적 세계관이 체질화 되어 있어 뿌리 깊은 기독교적 사유가 형상화되어 있다고 술회하고 있다.(시인만세-〈박이도 시인을 만나다〉, 《문학아카데미TV》, 2020.) 시인은 현재까지도 신앙시선집의 발간 등 지속적인 종교적 표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2) 김현, 「기독교적 화평의 세계-박이도〈회상의 숲〉」, 『박이도 문학전집4』, 창조문예사, 2010, 18-24면 참조.
 - 3) 김시태, 「언어와 삶의 투시」, 『시문학』, 1980.12.
 - 4) 최동호, 「순수, 그 생명 현상의 세계」, 『심상』, 1984.2.
 - 5) 김재홍, 「들꽃 하나의 생명, 물방울 하나의 사랑을」, 『홀로 상수리나무를 바라볼 때』, 창작과 비평사, 1991.12.
 - 6) 안수환, 「하늘과 이슬 그 대위법」, 『시와 실재』, 문학과 지성사, 1983; 최규창, 「빛의 작업」, 『한국기독교시인론』, 대한기독교서회, 1984.
 - 7) 이승원, 「회상의 형식과 관념의 미학」, 『약속의 땅』, 시와시학사, 1994; 이광호, 「빛과 원형을 찾아서」, 『시와시학』 가을호, 시와시학사, 1995; 박주택, 「흰빛, 거울, 비상, 신성」, 『정년기념 논총』, 2003; 이재복, 「빛과 영생의 노래」, 『정년기념 논총』, 2003; 유성호, 「회상」을 통한 「순수 원형」의 완성」, 『정년기념 논총』, 2003, 하현식, 「어둠과 밝음의 변증법」, 『깨달음의 시학』, 말뚝, 2007.

의미 부여된 거룩한 정화의 공간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홍용희의 논의⁸⁾, ‘숲’의 성역화라는 관점을 통해 회상의 재현에서 정치적 사회 공간으로의 이동으로 분석한 김웅기의 논의⁹⁾ 등이 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에 입각해 분석하고자 한 논의로 신규호는 박이도의 신앙체험을 구약 이미지의 형상화 뿐 아니라 신약 세계관에 기초하여 시 세계를 구축해 왔다고 진단하며 분석한다.¹⁰⁾ 이어진 이성희의 연구 역시 기독교 교리의 인식과 체험, 체질화를 중심으로 분석했다.¹¹⁾

주지하듯 대부분 논자들은 박이도의 시를 기독교 정신의 맥락에서 검토해왔다. 종래의 논의들에서는 일련의 종교적 서사에 의존한 보편적인 해석으로서 고정된 시각의 한계점을 보인다.¹²⁾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이도의 기독교 신앙시를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하여 논의의 연장선에서 보다 정밀한 방법론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문학과 종교의 관계는 수천년 과거 이래의 지속되는 주제이다. 문학과 종교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의 주제라는 동일성이 있다.¹³⁾ 물론 문학과 종교는 독립된 영역이지만, 문학과 종교는 분명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문학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를 매개로 구체적인 예술적 형상을 통해 현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술 행위이다. 종교는 인간의 근원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초월의 세계관에 대한 믿음이자 자기 수련을 통한 도달에 이르고자 하는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다. 문학이 종교지향성을 지닌다고 해서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며 종교 또

8) 홍용희, 「순수의 성채」, 『꽃과 어둠의 산조』, 문학과지성사, 1999.

9) 김웅기, 「박이도 기독교시에 나타난 지정학적 공간 연구—초기시 ‘숲’ 공간의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제66집, 우리문화회, 2020.

10) 신규호, 「신앙 체험의 예술적 승화」, 『침묵으로 일어나』, 종로서적, 1988.9.

11) 이성희, 「박이도 시집 『홀로 상수리나무를 바라볼 때』에 나타난 기독교적 상상력 연구」, 『충신대논총』42, 충신대학교, 2022.

12) 이에 박이도 시 창작의 한계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논의(“공광규는 박이도의 현실지향적인 시에 한해서 가장 시적 성취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평한다.”—공광규, 「박이도의 시창작 방법 특징」, 『한국문예창작』4, 한국문예창작학회, 2003, 83면.)가 있으나 그 외에는 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

13) “미래에는 새로운 문학이 탄생할 것이며, 그 문학 속에서 위대한 신학과 위대한 미학이 모범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결연을 맺을 것이다.”(한스 쾨링, 「근대의 와해와 종교」, 발터 엔스·한스 쾨링, 김주연 옮김, 『문학과 종교』, 문학과지성사, 2019, 385면.)

한 규율과 도덕적 억압의 전체성으로 인간의 선악을 단정하는 영역에 의해 구획되는 결과론이 아니다. 또한 문학과 종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을 필요로 한다. 문학은 예술적 깊이를 위한 창조적 계기를, 종교는 궁극적 의미 전달을 위해 문학이라는 도구를 바란다. 문학과 종교 두 측면은 결코 대척적인 측면이 아닌 상보적인 요소이며, 오히려 서로를 발전시키는 요소가 된다. 이처럼 문학과 종교 양자는 “본질적으로 가장 참되고 아름다운 이상적 삶의 상태를 열렬히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닌다.”¹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변화하는 세계를 반영하여 감도를 높일 때 통찰의 시야가 열리게 되며 문학과 종교는 동일성을 이룬다. 종교적 상상력의 발현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에 투사되어 시적 탐구가 가능해 진다. 그리하여 문학과 종교의 상호보완을 살피고 서로 공유하는 지점에서 시인의 기독교 문학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이도의 종교지향성을 바탕으로 그의 기독교 신앙시를 고찰할 것이다.¹⁵⁾ 전 생애 일관되게 기독교 신앙을 견지해 온 시인에게 신앙이란 오랜 시간동안 성찰과 모색을 거친 것으로 내면에 견고한 논리적 의의가 자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박이도의 시작 원리에 대한 전체를 정리하고 기독교 문학과 비교 및 시적 형상화 방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들의 변방에 놓여있던 박이도의 시가 문학과 종교의 ‘교량’ 역할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밝혀내고, 나아가 다소 이분법적으로 제출되었던 기독교 문학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4) 윤영천, 「문학과 종교-‘한국 현대시와 기독교적 연관’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2004, 291면.

15) 박이도의 시 창작 유형으로는 종교지향성 외에 현실지향성과 전통지향성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시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지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형이상학성의 실천 토대와 생명 지향

박이도의 시는 초창기 관념에서 이미지로 변신했으며 그의 시적 방향성은 현실과 융합된 기독교의 활착을 가져오게 된다.¹⁶⁾

박이도 시정신의 뿌리가 되는 종교성은 삶과 시적 세계가 동일한 궤적으로 자리한다. 시인의 고향은 평안북도 선천으로 개화기를 전후하여 기독교의 선교거점이 되었던 곳이다. 도시 전체가 복음화 된 곳에서의 성장환경은 기독교의 살아있는 원형 체험이 된다.¹⁷⁾ 기독교 문화를 역동적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인 공간에서의 유년기 기억은 시인에게 차후 일관되게 지속될 종교적 세계관과 함께 삶의 원형이자 시적 자원의 원천이 된다.

나그네 인생, 혼란한 시대에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부유(浮遊)했던 세월이었다. 8·15해방, 공산 치하에서의 쫓겨나 월남, 6·25 북한 괴뢰의 남침으로 인한 민족적 비극을 몸소 체험한 것 등이 내가 살아온 수난사이다. 평생 함께한 세월이 주는 불안, 공포 등의 정신적 피해(弊害)감이 평생 동안 내 의식 속에 숨겨져 있었다.”¹⁸⁾

성장기에 전쟁 체험을 했던 시인은 원형의 상처로 인해 내면에 움튼 불안을 지우지 못했다. 시인의 의식은 시대상과 맞물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으로 잠재되어 나름의 내적 딜레마를 가지게 된다.¹⁹⁾ 일제강점기의 신앙생활은 당시 도피처 역할을 했을 것이며 시대의 혼란을 거치며 시인은 불안의 극복을 위한 정신의 자유를 위해 순수 지향이라

16) 하현식, 「어둠과 밝음의 변증법」, 『박이도 문학전집4』, 창조문예사, 2010, 155면.

17) “초기 개신교는 구국 정신과 호환되어 특정 계급을 육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매우 조직적으로 사상이 전파되었다. 이는 제도적 관점에서 서구 문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직항의 경로였다.”(박성준, 「윤동주 시에 내재된 기독교 세계관의 낭만주의적 성격」, 『한국현대문학의 연구』6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198-199면.)

18) 박이도, 「생명의 언어, 죽음의 언어」, 『본질과 현상』52호, 태학사, 2018, 16면.

19) “실존주의사상가들이 말하는 불안의 개념을 나는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현실존, 진실실존 등의 용어에서 나의 본질적 자아는 어떻게 분별해 볼 수 있는가 하는 생각 따위가 불안 심리를 갖게 했다.”(박이도, 위의 책, 28면.)

는 직면의 길을 택한다. 따라서 그의 환경이 태생적으로 기독교의 제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사실과 이주민이라는 시대의 특수성은 박이도의 시 의식 세계를 고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동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이도 시인이 창작을 시작하던 시대인 60년대는 정치적 격동기로 이분법이 횡횡하던 시대였다. 문학인들 또한 현실참여의 태도를 취하며 시류는 문학적 변곡점을 이룬다. 기독교계 역시 군부독재 시기에 급성장을 이룬 한국교회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및 청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다.²⁰⁾ 한국 교회의 성장 신념에 따른 정체성 논쟁은 1980년대 전후 기독교 사회운동으로까지 확장되며 교회성장파 사회참여 양면이 변화된 지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당시 문화예술계와 기독교 지식인들의 현실참여의지와 실천담론은 기독교문학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바탕으로 확장된다. 이 기독교 문학은 구원이나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과 같은 기독교 신앙 개념의 내포와 기독교적 세계관의 통합이라는 특징이 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기독교 문학은 먼저 존재의 구원의식으로서 이상적 발상이 더해진 유형으로 등장한다.²¹⁾ 기존의 한국의 문화적 풍토인 유교적 현세주의 관점에서 원죄에 따른 죄의식은 낯선 것이었으며 서양의 여러 인본주의 사상과도 구분되기에 기독교의 수용은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세계관의 유입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²²⁾ 이후로 기독교 윤리의 차원에서 민족을 근대적 자아로 계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유형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²³⁾

20) “반공의 이념으로 쿠데타를 지지하던 한국교회는 한일국교정상화회담(1964)에 대한 비준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전국 연합구국기도회가 열리는 등의 국가 권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장규식, 「군사정권기 한국교회와 국가 권력: 정교유착과 과거사 청산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24,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6, 112면.

21) 윤동주와 김현승은 인간 본성에 따른 원죄와 구원의식을 기독교 교리에 따라 문학적 이해와 규명을 통한 시 세계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인들이다. 유성호는 두 시인에 대해 “형상을 매개로 하는 미적 충동을 통해 잠재적인 종교적 충동을 현출시키는 종교문학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후대의 위대한 자산”이라고 평하였다. (유성호,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종교적 상상력의 의미: 윤동주와 김현승의 경우를 중심으로」, 『문학과종교』2, 한국문학과종교학회, 1997.)

22) 김인섭,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의 구원의식: 윤동주, 김현승 시를 중심으로」, 『문학과종교』9,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04, 30-33면 참조.

23) 김용기는 후자의 유형에 대해 춘원과 박두진을 예로 들며 “기독교의 합리성을

주지하듯 박이도의 시에는 순수 서정의 시선이 일관되게 유지되며 자유와 사랑, 구원 등에 대한 갈망 등 화평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다. 시인의 종교적 상상력의 시편들은 당 시대의 어둡고 관조적인 분위기에 지배받지 않는다. 그러나 시인은 그의 시가 종교적 문맥에서 읽히는 것—기독교라는 경계의 틀과 문학 영역의 제한을 거부한다. 시인에 따르면 발표된 작품들이 기독교 전파의 수단이라는 목적성이나 종교적 효과를 위한 저술이 아닌, 삶의 원형을 탐구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보편적 통찰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인은 단테의 「신곡」을 예로 들며 그의 시가 기독교적인 형태를 갖추었으나 이는 소재일 뿐, 내재된 종교적 시선을 통한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과 정서의 형상화임을 강조한다.²⁴⁾ 자신의 기독교시가 종교의 대치물이 아닌, 서정의 시로서 접근하길 원하는 시인의 술회는 “시 전체가 하나의 은유”라는 엘리엇의 주장²⁵⁾과 “경전을 통해 깨달음에 접근해 간다”는 주자의 언어관과도 동일성을 이룬다.²⁶⁾

본 논문의 요지는 박이도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기독교 세계관이 존재에 대한 본능적 고뇌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기제로서의 내면 세계의 구축이라는 주장에 있다. 그 시작점은 우선 초기의 시편인 「회상의 숲·1」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내 회상의 숲 속엔
이제 아무도 거닐지 않는다
밤바다에 닳을 내린
목선의 꿈처럼

바탕으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이성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고 기획된 정치적 공간으로 해명한다.(김웅기, 앞의 글, 224면.)

24) 박이도는 “단테의 「신곡」이 기독교적 사상이 충만하지만 단지 당시 단테의 기독교적 환경에서 비롯된 사상을 바탕으로 인격이 형성되어 「신곡」과 같은 작품을 썼을 뿐 신앙적 의미로 작품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유성호, 「'빛'과 '신앙'의 의미를 캐는 언어의 갭부」, 『박이도 문학전집3』, 창조문예사, 2010, 428면.)

25) T.S. 엘리엇, 「단테론」, 『T.S. 엘리엇 문학론』, 정연사, 1957, 226면.

26) 김기호, 「주자의 언어관과 중도의 독서론」, 『한국사상과 문화』, 100권, 100호, 2019, 677-679면.

뒤척이는 물소리에 사라진
내 어린 그림자의 행방을
이제 아무도 모른다

조그만 손으로 눈을 가리고
호랑이 흉내를 하던 나의 과거를,
옥수수 대로 안경을 만들어 끼고
신방을 차리던 별바른 토담에
까치 옷과 부딪쳐 눈물 흘리고
나의 생각을 둘러선
밤나무 숲 속에서
가슴 조이던 유년 시대

내 사랑의 싹이 움트고
내 지혜의 은도가 빛나던
밤나무 숲 속,
새들의 노래는 퍼져가고
노을 속에 물드는 강물의 꿈은
멀리 멀리 요단강으로 흘러가듯
그때 발성하던 내 목소리를
이제 누가 기억하고 있으랴

-「회상의 숲·1」 전문²⁷⁾

박이도의 시는 초기 시에서부터 형이상학적으로 관념화된 세계를 그리며 동질화된 언어 정체성을 보인다.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하며 언어의 존재감을 제시했듯 인간의 사유체계에 있어 언어는 인간의 의식과 표상이라는 정신적 생명성이 된다. 시인에게 있어 “긴장, 두려움, 공포감”을 부과하는 현실은 언어의 문제와 상접되며 사유되어 왔다.²⁸⁾ 이에 시인은 상상적 옹호를 통해 잃어버린 시간들 속에

27) 박이도, 「회상의 숲」, 『박이도 문학전집1』, 창조문예사, 2010, 36-37면.

28) “시인으로서의 생애, 내가 살아온 시대는 긴장, 두려움, 공포감이 가위눌림처럼

서 침전된 과거의 언어를 무한대로 되살리고자 한다. 「회상의 숲」¹⁾의 언표 역시 “정태적인 민족의 관념어를 통해 침묵속의 자기 동일성을 찾고 있다.”²⁹⁾ 시인의 언어관은 기존의 언어 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기발하고 감각적인 이미지의 언어관과는 다른 점이며, 어쩌면 이것은 기존 시대적 언어의 인식체계에 대한 나름의 소극적 모반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박이도의 시세계에서 실존의 근원은 주로 뚜렷한 회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순수와 신성 이미지로 이상화된 세계에서 시작되는 시적 상상력은 아름다웠던 유년의 공간으로 반복되어 회상된다. 이 “‘회상’은 자아 정체성을 탐구하는데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형식”이다.³⁰⁾ 시인에게 “회상 속 선명하게 기억되는 유년 시절은 유일한 시적 근원이자 인간 욕망이 최종적으로 추구할 회귀적인 ‘순수 원형’의 이미지가 살아있는 ‘언어의 우물’”³¹⁾이기도 한 것이다. 시편에서 회상을 통해 불러온 “숲”이라는 공간은 시간의 공간적 상관물로 기능하며 한정된 기억으로 재현 된다. 사라져버린 유년 시절의 모습을 대입시킨 “이제 아무도 거닐지 않는” 숲을 상상적으로 거닐며 떠올리는 “호랑이 흉내”, “옥수수대”, “별바른 토담”, “까치옷”, “밤나무 숲”의 기억들은 시인의 유년기 상징과 등가가 되며 원형 상실의 아쉬움이다. 회상의 힘을 통해 시인은 상실된 것을 찾아 나서는 형이상학적 탐색을 지속하며 이 의지는 과거에서 미래로 열려진 무한한 지평으로 재생성 된다. “회상”을 통해 “회상의 숲”을 거닐면서 “내 사랑의 싹이 움트고” “내 지혜의 온도가 빛나던” “밤나무 숲 속”을 다시 걷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신화적 이미지의 “새들의 노래”와 종교적 이미지의 “요단강”과 원형적 이미지의 “목소리” 역시 동일한 차원이 된다. 시간과 현실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내 의식을 지배해 왔다. 이는 내 삶이 어느 시대에 합류했는가에 따른 숙명적인 개인사일 뿐이다.”(박이도, 『반추』, 문학수첩, 2003.)

29) 원형감은 박이도의 시에 시대적, 감각적 이미지의 시어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으며, 내적인 구조 자체가 묵은 생활어로 이는 관념의 침전 상태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원형감, 「침묵의 자기 동일성」, 『박이도 문학전집1』, 창조문예사, 2010, 46-48면 참조.

30) 유성호, 「‘회상’을 통한 ‘순수 원형’의 완성」, 『박이도 문학전집4』, 창조문예사, 2010, 226면.

31) 유성호, 위의 책, 229면.

순수에 대한 그리움과 신성에 대한 동경의 발화임을 알 수 있다. “그때 발성하던 내 목소리”는 “내 사랑의 싹이 움트고” “내 지혜의 은도가 빛나던” 유년의 “내 목소리”이기에, 현재의 “내”가 속한 현실의 부정적 상황과 반대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원하는 것이다. 일관된 순수의 세계에 기독교적 서사를 입힘으로서 돌아오지 않을 “유년”을 끊임없이 회상하고, ‘나’를 찾기 위한 자기 동일성의 작업은 신성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신성을 통해 현실의 고통과 존재의 고통을 밀쳐내고자 하는 박이도의 시세계는 창작의 완숙기를 거치며 심도가 점차 확장된다.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향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낭만적 탈출”이라고 하며 이는 낭만주의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다. 현실을 회피하고 이상향만을 추구하는 이 관점은 시인의 관념화된 시세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실을 포용하고 극복해내려는 리얼리즘과 극명히 대조된다. 낭만주의적 관점에서의 현실은 개선 불가 상태가 되기에 인간 근원의 잠재된 이상향으로의 추구는 당연시되는 것이다.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어딘가에 있을 순수의 세계는 처음 그대로의 세계인 “시원의 땅”이 된다.³²⁾ 이는 신의 나라로 시인이 꿈꾸는 세계이자 궁극적 목표가 된다.

실수처럼 내 손에서 떨어진
꽃 한송이
강물에 떠내려간다

낫달처럼 내 품속에서 떠나간
사랑의 체온,
흐르는 강물에 부서지는 햇살처럼
숨을 죽인다

이제 내 마음속에선
아프게 아프게 되살아나는

32) 정한용, 「초월과 신성의 세계」, 『박이도 문학전집4』, 2010, 256-257면 참조.

지난날의 그림

모든 이웃을 등지고
마을을 떠나는 이 죄인의 그림자를
지신 밟듯 짓밟고 가는
소 한 마리

성황당 비탈의 상수리나무에서
일제히 뜨는 새들이 부럽다
젖무덤 같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너머
불타는 노을이 그림다
이 적막함이 두렵다

-「나 홀로 상수리나무를 바라볼 때」 전문³³⁾

시인의 지난한 삶의 체험에서 비롯되었을 부정적 세계 인식은 시 세계의 바탕이 되며 존재론적 고뇌가 된다.³⁴⁾ 그러나 그의 인식이 비극적인 인식과 결부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신에 대한 신실하고 깊은 믿음 때문이다.

「나 홀로 상수리나무를 바라볼 때」는 내면의 진실을 찾아 순례의 길을 탐색해 가는 자의 모습이 깊게 새겨져 있다.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치환된 시어들은 척박한 현실과 역대응 된다. 현실에서의 삶은 “떨어진”, “떠나간”, “등지고”, “짓밟고”와 같은 아픔의 이미지로 상징된다. 고난을 경험한 ‘죄인’은 현실을 넘어 “새”처럼 날아 “불타는 노을”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한다. 시인이 부러워하는 “새”는 자유롭게 날고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흘러가는 존재이다. 자연 그대로의 형상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상수리나무”에서 평화롭게 비상하는 “새”의 심상은 자유

33) 박이도, 「나 홀로 상수리나무를 바라볼 때」, 『박이도 문학전집2』, 창조문예사, 2010, 176-177면.

34) “체험은 시적 자아의 존재전환적인 변화로서 시인의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하게 하는 중핵이 된다.”(김인섭, 위의 책, 29면.)

의지에 대한 지향이다. 이 생명적인 것에 대한 동경은 신성의 유추적 등가물이다. “지난날”의 “죄”로 인한 고통, 두려운 “적막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은 그 죄를 정화시켜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현세의 원죄는 “불”로 대립되는 것이다. “불”은 원형상징 뿐 아니라 기독교적 상징으로도 생명력과 정화의 표상이다. 성경에 나타난 불의 개념은 정결과 사랑, 능력의 상징이자 어둠을 쫓는 영적 방편이 되므로 “불타는 노을”은 곧 신성의 현현이 된다.

이처럼 박이도의 시편들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생명지향은 세계에 대한 성찰로 변이되며 기독교 의식의 반영이 된다. 서정시의 보편성을 주로 한 시적 상관물은 문학과 신앙의 매개가 되어 구원을 향한 간접적인 체험이 되며 주체의 실현이 된다. 오직 신의 섭리를 쫓아 순례자가 되기를 원하는 존재의 절실함은 곧 고독한 개인의 갈망이 된다.

3. 신앙적 언어에 숨긴 불안과 구원의 갈망

-박이도와 릴케 시의 ‘고독’과 ‘존재’의 의미

유한한 인간 존재는 영원의 세계를 알 수 없고 그 미지의 영역이 주는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 신앙의 대상 속에 종속되려는 관성을 갖는다. 자신을 세계 인식의 정초로 삼는 근대적 주체에게도 종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를 돌아보게 한다.

1910년대 기독교 찬가 및 신체시가 등장한 이래 1930년대 이후 기독교 시를 창작한 시인들이 등장하면서 그 지평을 확장해왔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형상화하면서도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조나 전통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호교문학의 성격을 띠지 않고 인간 이해의 영역을 심화시키는 문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의 릴케의 문학은 한국문학사에 기독교문학으로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릴케의 문학에서의, ‘신’, ‘기도’, ‘천사’, ‘존재’, ‘변용’ 등의 주제는 기독교적 색채의 문학세계를 지닌 시인들(정지용, 박용철, 윤동주, 김춘수, 고석규, 김현승 등)에게 영향을 미쳤다.³⁵⁾

박이도의 시편들에서 역시 릴케의 전유 양상이 나타난다. 생명, 순수, 구원 등에 대한 지향과 관련 시어들은 한국 기독교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원형적인 이미지임과 동시에, 자기 사유와 그에 따른 정체성 실현의 경향이다. 릴케와 박이도 모두 삶과 죽음, 인간 실존의 고독과 불안, 예술과 이를 창작하는 시인의 임무라는 문학의 영원한 주제를 탐구하고자 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이도와 릴케의 비교를 통해 박이도가 추구했던 예술과 그의 종교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보고자 했다. 릴케와 박이도의 시 연구가 신학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이어질 연구에서는 시와 기독교와의 연관성을 확립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향후 심화된 연구를 통해 릴케와 박이도 시 전반을 폭넓게 이해하고 개별적으로 비교하며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3장에서는 릴케와 박이도의 시 작품들을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고독은 비처럼
 바다로부터 저녁을 향해 올라온다.
 멀리 외딴 별관으로부터 고독은
 언제나 외로운 하늘로 올라가서는
 처음 그 하늘에서 도시 위로 떨어져 내린다.

모든 골목길마다 아침을 향해 뒤척일 때,
 아무 것도 찾지 못한 육신들은
 실망과 슬픔에 젖어 서로를 떠나 갈 때,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 잠자리에 들어야하는
 그 뒤엀킨 시간에 비 되어 내리는

고독은 냇물과 더불어 흘러간다.

— 릴케, 「고독」 전문³⁶⁾

35) 관련된 연구 논문으로는 오주리, 「릴케의 문학과 운동주의 문학에 나타난 키르케고르 철학의 전유에 대한 비교 연구」, 『문학과종교』24,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9. 등이 있다.

언제부터였는지
 등에 들메어진 피나리붓집이 버거웠구나
 차면 비우고 또 차면 비워내며 달려온 한 세월
 무엇을 그리 많이 짊어졌는지
 한적한 물가에 앉아 낚싯대를 드리운다
 오늘은 다 내려놓고, 고독의 정체를 명상하자
 물안개 피어오르는 수초에 붙어 꼼짝 않는 잠자리도 보인다
 침병 뛰어드는 개구리 한마당 저들의 합창이 시작되려나
 사랑대는 미풍이 내 귓가를 맴도는구나.

—박이도, 「고독을 낚다」 전문³⁷⁾

박이도와 릴케의 초기 시 편들에 흐르는 서정적 경향과 함께 원시적인 자연인식과 범신론적 사상이 드러난다. 이 견고하고도 자연스러운 신의 존재에 대한 동경과 환상, 존재의 불안과 순수에 대한 사랑은 유기적으로 제시되며, 이 점에서 릴케와 박이도 문학은 동질성을 이룬다. 릴케가 방랑길 끝에 완숙하게 변해 가는 자아 성장을 문학적 변모와 발전으로 형상화 한 것처럼 박이도 역시 체험을 통한 겸허한 시적 인식과 세밀한 성찰로 고유성을 전개하며 개개의 현상에 대한 존재 긍정을 표현한다.

릴케는 일생을 떠돌이처럼 살았던 방황하는 영혼이었고 그의 문학세계는 불안의 감정이 주된 정서가 된다. 이 실존적 불안은 박이도와 공통점으로 드러난다. 박이도 역시 ‘고향’이라는 기표 혹은 이미지를 매개로 유년의 이주 경험을 시작의 양분으로 삼은 시인이다.

이와 같은 불안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시어는 ‘고독’이다. 불안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첫째, 외부의 자극에서 오는 불안과 둘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불러일으키는 불안, 셋째, 체험과 학습을 통해 내면에서 새로이 구성되는 불안으로 ‘가치 있는’ 시의 창작은 시인에게 있어서 차별화의 수단이 된다. 불안에 대한 실존적 해결책이 된다. 그러

36) 라이너 마리아 릴케, 안문영 역편, 『릴케의 명시』, 세계출판사, 1989, 73면.

37) 박이도, 『있는 듯 없는 듯』, 서정시학, 2020, 18면.

므로 릴케와 박이도에게 있어 ‘고독’은 시세계에 매우 중요한 공통 테마가 된다. 이것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이었다. 이 ‘고독’은, 인간이란 ‘저무는 육체’라는 인간의 유한성과 ‘원죄’의식으로 귀결되는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독이다. 이는 존재의 불안과 맞닿아 있다. 정체성에 대한 사유는 곧 구원을 향한 목표가 된다. ‘구원’은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외로운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으려는 간절한 시도에서 오는 해답일 것이다.

시인은 사물이 주는 순간의 찰나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참된 것이기를 바란다. 시인에게 세계는 바깥이 아닌 감각에서 느끼는 내면화이다. 시인은 대부분 일상의 일이나 예사롭게 넘기는 대상들로부터 새로움과 영감을 받는다. 이는 시인이 우주나 만물과 연결성을 강하게 느끼며 시적 생성의 그 깊이는 광활함이다.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실재보다 높은 차원의 인지이며 이 근본은 신의 존재에서 자리한다. 고독의 시적 화두는 서술 대상과의 거리와 시공을 초월한 시적 언어이자 힘의 원천이 된다.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떨어져 아득한 곳에서처럼
하늘나라 먼 정원이 시들어 버린 듯
거부하는 몸짓으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무거운 지구는 밤마다 떨어져 나간다,
모든 별들로부터 고독 속으로.

우리도 모두 떨어진다. 여기 이 손도 떨어지고,
다른 것들도 보라, 모두가 떨어진다.

그래도 한 분이 계셔 이 낙하를
끝없이 부드러운 두 손으로 받쳐 드시거니.

—릴케, 「가을」 전문³⁸⁾

38) 라이너 마리아 릴케, 앞의 책, 74면.

날마다 나의 빈 잔을 채우시는구나
믿음의 명철을
생명의 지혜를
스스로 고독의 누룩을 부풀리는
내 영혼의 숨소리

투명한 생명수로 고이는 빈 잔
삶의 소망을
스스로의 평정심을 빚어 주시는 한 분이 계셔
나의 고독은 뭉게구름으로
두둥실 떠오르네

— 박이도, 「누룩」 전문³⁹⁾

릴케와 박이도 모두 공간에 대한 감각적 반응을 주로 나타내는데 추상적 개념도 공간감각을 통해 텍스트를 통한 인화로 새롭게 구성하여 그려낸다. 위 시편들 역시 풍요 속 고독의 정취가 여실히 드러난다.

자연에서 미묘함이 일으키는 파장은 시인이 말하는 미묘함으로 일어난다. 자연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할 때 마음도 함께 움직인다. 릴케는 그 공간의 이동에 대해 받아들이며 인위적이 아닌 자연의 법칙에 따른 낙하를 받아들인다. 숙명과도 같은 자연의 준비는 고요한 변화로 미세하고도 몽환적인 아름다움으로 가을을 표현한다. “지구 전체가 떨어지고 여기 이 손도 떨어진다”이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지는 가을은 단순히 떨어지는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연의 한 과정인 생명력의 순환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일상과 생명에도 비유될 수 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생명은 계속되는 순환을 이룬다.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지면 그 잎이 흩이 되어 다시 나무를 키운다. 이렇게 소멸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조락의 실감을 증폭시키는 표현은 무엇인가 끝나간다는 슬픈 의미역임과 동시에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암시하는 희망적인 뉘

39) 박이도, 『누룩』, 창조문예사, 2018, 95면.

양스라는 동시성을 지닌다. 조락은 곧 변화를 뜻한다. 일상과 감정, 자연의 움직임에 깊숙이 어우러져 물들어 간 낙엽의 소멸을 슬퍼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고요한 기대감에서 오는 것이다. 조락이 담고 있는 슬픔과 아름다움을 계절성을 넘어 신에 대한 희망으로 마무리한다.

이에 박이도의 하루의 시작을 비워진 “잔”이라는 매개체 역시시간의 흐름과 삶의 의미, 자연과 인간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 탐구가 된다. 이로서 빈 잔은 인간 사회와 문화, 삶과 감정이 담긴 이야기가 된다. 비움과 채움은 본질적 하나에서 생성된다. 이처럼 「가을」과 「누룩」 두 시는 소멸과 비움 뒤 다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암시와 이를 신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맺는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신이 와서 ‘나는 존재한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런 힘을 스스로 밝히는
그런 신은 의미가 없다.
처음부터 너의 내부에서
신이 바람처럼 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너의 마음이 달아오르고,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을 때
신은 너의 마음속에서 창조를 한다.

— 릴케, 「신이 와서 ‘나는 존재한다’고 말할 때까지」 전문⁴⁰⁾

밤사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의 형상을 새로이 지으신다

이른 아침 뜰에 나서면
풀숲에 숨은 이슬
햇살이 쬐어 매듯

40) 라이너 마리아 릴케, 송영택 옮김, 『릴케 시집』, 문예출판사, 2014, 109면.

사랑을 엮어 주네
밤사이 진 감꽃들이
하얗게 웃음 짓는다
못다 한 결백의 생명으로
내 형상을 짓는다

아, 밤사이
내가 무엇을 꿈꾸었나
어둠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먼 데만을 향해
손짓을 하였구나

이 아침의 밝음을 두고
이슬의 총명과
감꽃의 결백을 두고
나의 참 형상을 두고

-박이도, 「나의 형상」 전문⁴¹⁾

릴케의 내면은 '무한'의 다른 이름으로 세계화된다. 시인의 즉각적인 내면화는 창조를 통해 스스로의 무한의 지점으로 닿고자 하는 지점이며 이 내면의 창조는 신의 세상의 창조함과 동일성을 이룬다. 이 무한의 내면 작용은 순간의 탄생과 변용으로 지속되어진다. 사물의 형상을 통해 깊은 광활함으로 재탄생하는 신의 모습이며 잃어버린 신비는 시인의 교감으로 광활하게 되살아나는 것이다. 마음은 늘 무한을 듣고 보는 마음은 전제에서 바라보는 우주적인 나의 깊이로부터 스스로 생명력을 얻는다. 내면에서 외면으로 표출된 종교성이 짙은 언어는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릴케와 박이도는 삶의 불안을 특유의 섬세한 직관과 감각으로 치환하며 이것은 시적 언어의 변모와 발전이라는 창작적 고양의 자양분으로 나타내게 된다. 자기 형성의 과정

41) 박이도, 「나의 형상」, 『박이도 문학전집3』, 창조문예사, 2010, 278-279면.

을 서정적이고 풍부한 포에지로 드러내고, 독자적인 직관과 깊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방식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본질을 추구하며 체험을 시적인 힘으로 승화하고 실존의 의미를 밝히는 내면 형상적 감각은 존재의 탐구와 함께 실재의 토대 위에 자리한 유토 피아적 공간을 창조하며 박이도와 릴케가 공유하는 세계관이 된다.

4. 나가며

종교적 관념, 특히 기독교 세계관을 문학적 상상력과 사유의 자양으로 삼는 문학 작품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적 관념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독교로 칭할 수 있는 신앙은 인간과 우주만물을 창조한 절대자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현상 세계의 근거를 이성이나 감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절대적 존재에 두는 관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문학작품은 이 절대적 관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띠 수 있지만 이를 세계관의 수용 태도라는 관점에서 나눈다면, 기독교적 관념을 세계 인식의 필터로 삼는 경우와 그것 자체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작품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을 통한 문학적 형상화는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 이해의 기지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자기해체적인 작업이 된다. 하지만 개별 시편의 우열을 평가하는 억압적인 도식이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성과 감성이 아닌 영성을 통한 세계에 대한 이해는, 역설적으로 근대적 주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종교적 관념이—사회문화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세계관이었던 시대와 달리—개인의 내면의 문제로 전환되면서 종교적 관념에 대한 문학적 사유는 개별적으로 문학 세계를 이해하고 근대적 주체의 성격을 해명하는 중요한 국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종교적 세계관은 신앙의 현실과 일상적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후자를 비하하려는 경향의 사회를 지배하는 세계관으로서가 아니라 개별 주체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갱신하게 하는 존재론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근대의 종교는 문학의 영역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현상 세계의 가치와 가능성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영감을 문학에 제공할 수 있다. 진부한 관념과 도식성의 위험을 넘어설 수 있다면 기독교 신앙의 문학적 형상화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심화·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박이도는 신앙의 대상에 자신을 동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의식을 보여준다. 절대자를 향한 절대적인 복종과 함께 생각의 진리성을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신앙을 통해 근거 짓는다. 시인은 끊임없는 절대자의 형상화를 통해 주체의 접근 가능성과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노력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는 지상에 있는 인간이 공간적 한계를 넘어 천상에 있는 신에 대해 다가서고자하는 의식의 부단한 노력인 것이다. 또한 이에 의해 전개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문학적 탐색이 이후의 문학사를 통해서 어떻게 확대되고 심화되며 변화하는가를 살피는 일은 이후에 남겨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Christian World View of Park Yido

Lee, Soo-bin(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reveals that Park Yido's literature was not intended as a means of Christian propagation, but rather explored the prototype of life and sought universal insight into human existence.

Park Yido's poetry world has been interpreted based on Christian thinking and has expanded the reciprocity between literature and religion. It can be said that it has established a universal and metaphysical dimension of Korean religious poetry by embodying the desire for freedom, love, and salvation as a lyrical narrative. It can be said that Park Yido's poetry world, which has accepted Christianity as a modern culture and has carried out continuous reflection and anguish within the Christian spirit, shows the character of Korean Christian literature very clearly. Although it is a literature that unconsciously contains the cause of Christianity, he discovers a spirit that faces the Christian faith. His honest inner fighter based on religion becomes a concrete existenc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reasons developed in that Park Yido's entire prototype is not only directly or indirectly connected to the Christian worldview and spirit, but that the process of changing the spirit of poetry stems from religious thinking. I would also like to pay attention to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Park Yido's poetry as a medium of literature and religion.

Key words : Park Yido, Christianity, life, purity, salvation, metaphysics,
Christian literature

[참고문헌]

■ 기본자료

- 박이도, 「회상의 숲」, 『박이도 문학전집1』, 창조문예사, 2010, 36-37면.
_____, 「나 홀로 상수리나무를 바라볼 때」, 『박이도 문학전집2』, 창조문예사, 2010, 176-177면.
_____, 「나의 형상」, 『박이도 문학전집3』, 창조문예사, 2010, 278-279면.

■ 단행본

- 김재홍, 「들꽃 하나의 생명, 물방울 하나의 사랑을」, 『홀로 상수리나무를 바라볼 때』, 창작과 비평사, 1991.12.
김현, 「기독교적 화형의 세계-박이도<회상의 숲>」, 『박이도 문학전집4』, 창조문예사, 2010, 18-24면.
김시대, 「언어와 삶의 투시」, 『시문학』, 1980.12.
공광규, 「박이도의 시창작 방법 특징」, 『한국문예창작』4, 한국문예창작학회, 2003, 83면.
박주택, 「흰빛, 거울, 비상, 신성」, 『정년기념 논총』, 2003.
신규호, 「신앙 체험의 예술적 승화」, 『침묵으로 일어나』, 종로서적, 1988.9.
안수환, 「하늘과 이슬 그 대위법」, 『시와 실재』, 문학과 지성사, 1983.
유성호, 「‘회상’을 통한 ‘순수 원형’의 완성」, 『정년기념 논총』, 2003.
유성호, 「‘빛’과 ‘신앙’의 의미를 캐는 언어의 갱부」, 『박이도 문학전집3』, 창조문예사, 2010, 428면.
유성호, 「‘회상’을 통한 ‘순수 원형’의 완성」, 『박이도 문학전집4』, 창조문예사, 2010, 226면.
이광호, 「빛과 원형을 찾아서」, 『시와시학』 가을호, 시와시학사, 1995.
이승원, 「회상의 형식과 관념의 미학」, 『약속의 땅』, 시와시학사, 1994.
이재복, 「빛과 영생의 노래」, 『정년기념 논총』, 2003.
원형갑, 「침묵의 자기 동일성」, 『박이도 문학전집1』, 창조문예사, 2010, 46-48면.
정한용, 「초월과 신성의 세계」, 『박이도 문학 전집4』, 2010, 256-257면.
최규창, 「빛의 작업」, 『한국기독교시인론』, 대한기독교서회, 1984.
최동호, 「순수, 그 생명 현상의 세계」, 『심상』, 1984.2.
하현식, 「어둠과 밝음의 변증법」, 『깨달음의 시학』, 말쌈, 2007.

- 하현식, 「어둠과 밝음의 변증법」, 『박이도 문학전집4』, 창조문예사, 2010, 155면.
- 한용섭, 하영선편, 「평화와 군사안보」, 『21세기 평화학』, 풀빛, 2001, 206면.
- 홍용희, 「순수의 성채」, 『꽃과 어둠의 산조』, 문학과지성사, 1999.
- 박이도, 『반추』, 문학수첩, 2003.
- _____, 「생명의 언어, 죽음의 언어」, 『본질과 현상』52호, 태학사, 2018, 16면.
- _____, 『있는 듯 없는 듯』, 서정시학, 2020, 18면.
- _____, 『누룩』, 창조문예사, 2018.
- 발터 옌스·한스 쾨링, 김주연 옮김, 「근대의 와해와 종교」, 『문학과 종교』, 문학과지성사, 2019, 385면.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송영택 옮김, 『릴케 시집』, 문예출판사, 2014, 109면.
- _____, 안문영 역편, 『릴케의 명시』, 세계출판사, 1989, 73-74면.
- T.S. 엘리엇, 「단테론」, 『T.S. 엘리엇 문학론』, 정연사, 1957, 226면.

■ 논문 및 기타 자료

- 김기호, 「주자의 언어관과 중도의 독서론」, 『한국사상과 문화』, 100권, 100호, 2019, 677-679면.
- 김인섭,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의 구원의식: 윤동주, 김현승 시를 중심으로」, 『문학과종교』,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04, 30-33면.
- 김용기, 「박이도 기독교시에 나타난 지정학적 공간 연구-초기시 ‘숲’ 공간의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제66집, 우리문학회, 2020, 215-244면.
- 박성준, 「윤동주 시에 내재된 기독교 세계관의 낭만주의적 성격」, 『한국현대문학의 연구』6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198-199면.
- 오주리, 「릴케의 문학과 윤동주의 문학에 나타난 키르케고르 철학의 전유에 대한 비교 연구」, 『문학과종교』24,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9.
- 유성호,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종교적 상상력의 의미: 윤동주와 김현승의 경우를 중심으로」, 『문학과종교』2, 한국문학과종교학회, 1997.
- 윤영천, 「문학과 종교-‘한국 현대시와 기독교적 연관’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2004, 291면.
- 이성희, 「박이도 시집 『홀로 상수리나무를 바라볼 때』에 나타난 기독교적 상상력 연구」, 『충신대논총』42, 충신대학교, 2022.
- 장규식, 「군사정권기 한국교회와 국가권력: 정교유착과 과거사 청산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24,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6, 112면.
- 시인만세-〈박이도 시인을 만나다〉, 《문학아카데미TV》, 2020,

https://youtu.be/9Nj2u-k_adc?si=DnwAqBn9vp58QqhX, 검색일 2024년 03월15일.

투고일: 2024.03.15 심사일: 2024.03.25 게재확정일: 2024.04.09